

전남도,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참여 기업 공모

26일까지...기술·시설·인증 등 15억 원 투입해 10개사 지원

전남도는 중소형 조선소 및 조선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조선업은 사망사고 발생률이 제조업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대표적 고위험 업종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보건·안전·환경(HSE)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현장 진단을 통해 조선업 생산 현장 맞춤형 보건·안전·환경(Health-Safety-Environment) 대응 기술을 보급 확대하는 사업이다. 조선업 밀집 지역인 전남·경남·부산·울산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했으며, 총사업비는 60억 원 규모다. 전남에는 15억 원(국비 10억 원·도비 5억 원)을 투입, 총 10개 기업을

지원한다.

기술, 시설, 인증 등을 지원한다. 보건·안전·환경 기술 지원의 경우 고급 안전장치기술, 사물인터넷(IoT) 및 센서 등 스마트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8개 회사를 선발한다. 최대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며, 기업 부담금은 20%(현금 10%·현물 10%) 수준이다.

보건·안전·환경 시설 지원은 화재 안전시설, 작업장 조명 등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시설을 구축한다. 2개 기업을 선발한다. 기업당 최대 2천5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업 부담금은 20%(현금 10%·현물 10%)다.

보건·안전·환경 인증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공인기관 인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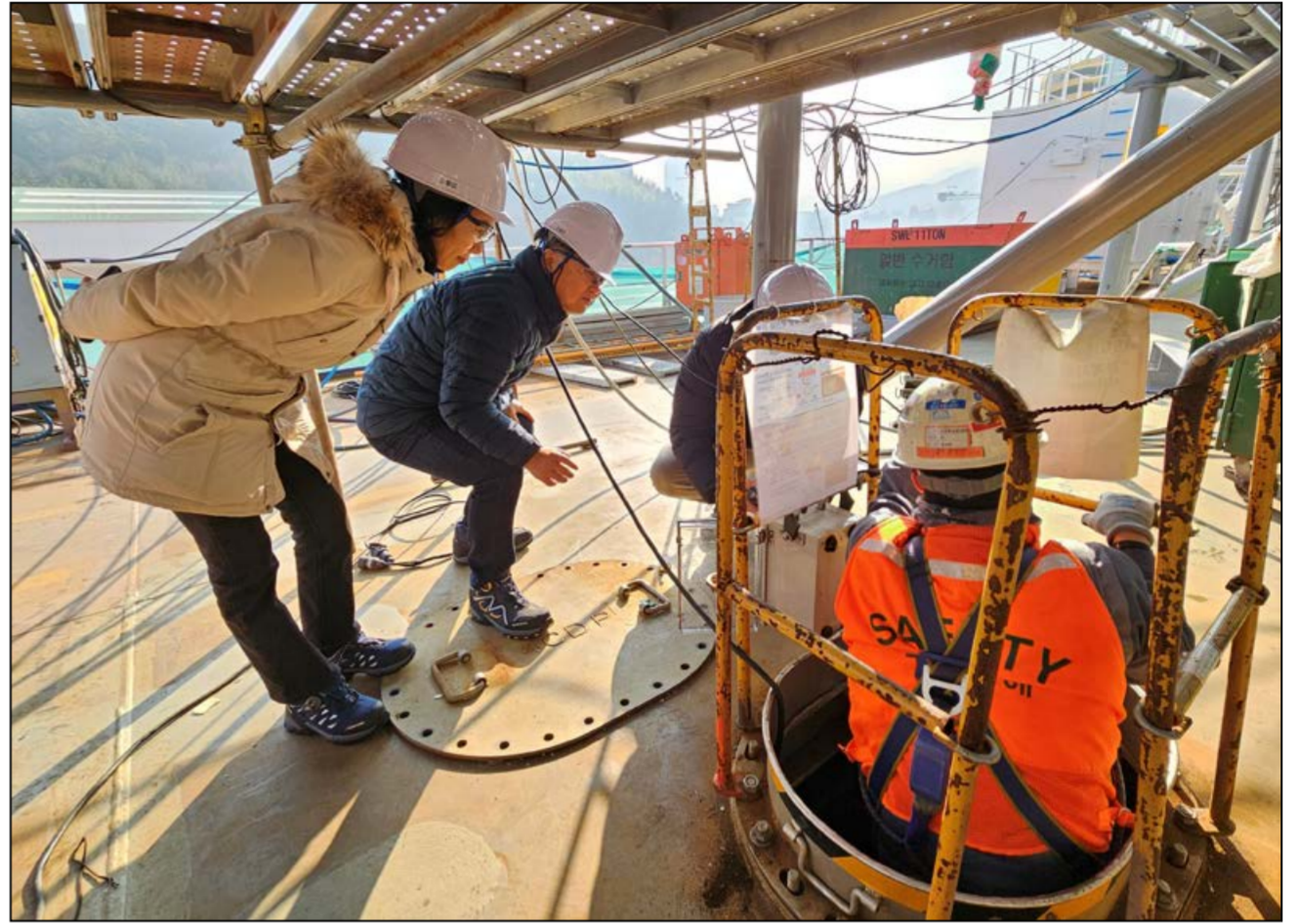
신청 자격은 전남에 있는 중소형 조선소, 대형조선사의 사외협력사, 조선기자재 기업이다. 50인 이하 규

모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우대 가산점을 적용받는다.

국내 조선업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며, 참여 기업 소유(임차 포함)의 생산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상습 임금체불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류 및 대면 평가를 거쳐 5월 말 지원 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조선연구원 누리집(www.rims.re.kr) 사업공고 매뉴를 참고하면 된다.

김미순 전남도 기반산업과장은 "대형조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보건·안전·환경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며 "조선업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청년층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용운기자



전남도는 중소형 조선소 및 조선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현장 진단을 통해 조선업 생산 현장 맞춤형 보건·안전·환경 대응 기술을 보급 확대하는 사업이다. 조선업 밀집 지역인 전남·경남·부산·울산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했으며, 총사업비는 60억 원 규모다. 전남에는 15억(국비 10억·도비 5억)을 투입, 총 10개 기업을 지원한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영산강Y벨트에 '걷고싶은 역사문화유산길' 조성



광주시는 먼저 국비 1억원을 투입해 설계를 우선 추진하며, 신창동 유적 서쪽 구릉 경사면에서 시작해 저습지로 이어지는 500m 길이의 수로를 조성해 저습지 생태 복원을 추진한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영산강 Y프로젝트의 시작점인 신창동 유적부터 황룡강으로 이어진 호가정까지 '걷고 싶은

역사문화유산길'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신창동유적지에는 2000년 전 마

한의 옛 수로를 재현하고, 시 지정 문화유산인 호가정에 역사길을 조성하는 등 역사·문화·생태가 함께 하는 시민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신창동 유적과 시 지정 문화유산인 호가정 일원 등 영산강Y벨트에 '걷고 싶은 역사문화유산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먼저 국비 1억원을 투입해 설계를 우선 추진하며, 신창동 유적 서쪽 구릉 경사면에서 시작해 저습지로 이어지는 500m 길이의 수로를 조성해 저습지 생태 복원을 추진한다. 수로는 옛 마한의 자연 배수로 형태로 재현될 계획이다.

광주시는 자연 배수로 설계를 위해 관련 문화재 전문가의 의견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철저한 고증을 거쳐 배수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신창동 사적 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마을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에 나섰고, 광산구와 협업을 통해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광주 신창동 유적은 지난 1992년 9월 국가사적 제375호로 지정됐다. 월봉산 능선의 끝자락에 자리해 자연경관이 뛰어나며 초기 철기시대와 삼한시대의 생활상을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 발굴돼 역사문화 교육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다. 과거 영산강 범람으로 유입된 토사가 자연스럽게 저습지로 형성돼 수천년이 지났음에도 문화유산의 보존상태가 타임캡슐처럼 매우 양호한 곳이다.

광주시는 또 국비 예산으로 '신창동 종합정비 연구용역'을 추진, 신창동 유적의 종합적인 복원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용역을 통해 신창동 유적의 흔적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과 역사공원 조성, 마한유적체험관 연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산강과 황룡강 합수부에 위치한 수변경관 조망이 우수한 '호가정'(시 지정 문화유산)에도

국토교통부 2023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9억원으로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5년 역사문화유산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은 호가정 주변 환경정비(둘레단 설치, 수목정비 등)와 인근 영산강과 황룡강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수변 산책로와 경관 정원을 조성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오는 17일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이 어울리는 수변 산책로, 경관 정원 조성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지역 역사유산과 영산강 Y프로젝트의 시작점인 신창동 유적과 황룡강에 이어진 호가정까지 걷고 싶은 역사문화유산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기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